

귀속과 기속

-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의 존재론적 함축 -

한 석 환*

목 차

1. 존재자들의 네 유형
2. 서술의 두 틀
3. kata tinos의 구조
4. en timi의 구조
 - (1) '부분'의 문제
 - (2) 불가리 조건

1. 존재자들의 네 유형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에서 하나의 복합적인 존재론을 지향하고 있다.¹⁾ 그의 이론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대상들만이 아니다. 대상들의 성질들도 존재한다. 그가 보기에는 성질에 관한 문장들이라고 해서 그냥 대상에 관한 문장들로 번역 또는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즉 대상에 관한 문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성질들의 상정을 통하여 설명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씹씩하다”와 같은 문장의 성립은 철수와 같은 대상뿐만 아니라, 씹씩함과 같은 무엇, 즉 그 자체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대상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무엇도 있다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에서 대상과 성질이라는 대답뿐만 아니라, 보편과 특수 또는 개별이라는 대답도 상정하고 있다. 물론

* 본교 철학과 조교수

1) Allen (1973), 370.

그가 『범주론』에서 ‘보편’(katholou)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개별’(atomon)을 언급하고(1 b 6, 3 a 35, 38, 39; 3 b 2, 7, 12), 이것에 종 및 유를 대립시킨다. 그러나 대상과 성질이라는 대립과, 특수와 보편이라는 대립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성질들뿐만 아니라, 대상의 부류들, 즉 성질들과 엄연히 구별되는, 실체의 종과 유 및 종차들도 보편자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철수는 사람이다”에서는 “철수는 씩씩하다”에서와는 달리 철수의 또 다른 하나의 성질이 아니라, 두 가지 실체, 즉 철수와 사람이라는 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종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씩씩함과 같은 성질은 아니다. 보편자들 가운데에는 요컨대 성질들도 있고 대상의 부류들도 있다. 개별자의 경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상들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성질들에서도 개별적인 것을 문제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과 성질이라는 대립과, 보편과 개별이라는 대립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편과 변갈아 가면서 짝을 짓는다. 그 결과 존재자들은 크게 네 갈래로 대별된다. 개별적 대상들, 개별적 성질들, 보편적 성질들, 그리고 보편적 대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범주론』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1 a 20 이하):

- 존재자들 가운데에는 (1) 기체에 대해 단언되긴 하지만 어떤 기체에건 기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
- (2) 기체에 기속하긴 하지만 어떤 기체에 대해서건 단언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
- (3) 기체에 대해 단언되기도 하지만 기체에 기속하기도 하는 것들이 있다 [··]
- (4) 그런가 하면 어떤 기체에 대해서건 단언되지도 않지만 어떤 기체에건 기속하지도 않는 것들이 있다 [·]

유형 (1)에 속하는 존재자는 사물들의 종과 유들이다. 『범주론』 제5장의 용어를 써서 말한다면 ‘제이실체들’(deutera ousiai)이 곧 그런 존재자들이다. 한 예로 사람([ho] anthrōpos)을 들 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 단언된다. 철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문제의 인물에 사람이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²⁾ 일반적으로 유는 종에 대해 단언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 종에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 (2)에 속하는 존재자는 어떤 것(tode ti)의 성질들이다. 개별적인 문법 지식(hē us grammatikē)이 그 한 예이다. 그것은 어떤 기체엔가에 기속한다. 이를테면 어떤 한 인물의 영혼 같은 데 말이다. 그러나 그 기체에 대해 그것이 단언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모종의 문법

2) 1 a 21-22 아울러 3 a 10 이하도 참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곧 그 문법 지식(자체)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다른 한 예는 개별적인 하양(*to ti leukon*)이다.³⁾ 아닌게 아니라 개별적인 하양은 개별적인 사물에 기속한다. 그러나 그 사물에 대해 그것이 단언되지는 않는다. 문법 지식의 경우에서처럼 문제의 사물이 곧 하양(자체)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저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일 뿐이다. 유형 (3)에 속하는 존재자는 주격 명사화된 성질들의 유들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체들이 동일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단언의 기체와 기속의 기체가 있기만 하면 된다. 한 예로 지식(*hē epistēmē*)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기체엔가에 기속한다. 이를테면 어떤 한 인물의 영혼 같은 데에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 기체에 대해 단언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문법 지식 같은 것에 대해서 말이다. 문법 지식도 일종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예의 개별적인 하양 같은 것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색(*to chrōma*)이다. 그런데 색은 물체(*to scōma*)에 기속한다. 끝으로 유형 (4)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론』 제5장에서 제일실체(*prōtē ousia*)라 부르는 것들, 즉 구체적인 개물(個物)들이 속한다. 철수, 영희 등과 같은 개별적 인간(*ho us anthrōpos*)들과 바둑이, 누렁이 등과 같은 동네 개들이 그 예들이다. 이를테면 철수는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단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철수는 무엇에 기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 혹자는 “저기 저 키다리는 철수야”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면서 개별적 사물도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단언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즉 주어-술어 형식의 서술이 아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마따나 ‘우연적인’(*kata symbebēkos*: 43 a 34) 서술일 뿐이다. ‘저기 저 키다리’라는 단칭적 표현을 통해 지시되는 대상은 ‘철수’라는 이름의 의미 또는 퍼지자와 일치하므로, 예의 저 문장은 일종의 동일성 언명일 뿐이다. 그러므로 ‘철수’가 거기서 술어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⁴⁾

유형 (1)과 (4)에 속하는 존재자들은 존재적으로 자립적인 것들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라 부르는 것들이다. 이에 반하여 유형 (2)와 (3)에 속하는 존재자들은 존재적으로 비자립적인⁵⁾ 것들로서 실체들에 기속 또는 ‘더부살이’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유형 (2)와 (4)는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형 (1)과 (3)은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상통한다.

이렇듯 존재자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는 『범주론』의 시각은 그것들을 크게 두 부류로

3)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격 명사화된 성질임을 주의해야 한다. 앞서 예거된 문법지식의 경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hē us grammatikē*’와 ‘*to ti leukon*’에서의 ‘*us/ta*’는 관형적(冠形的, attributiv)으로 쓰인 것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고유한 용법인데, 그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개념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4) Patzig (1973), 64 참조.

5) 비실체적인 것들의 존재적 비자립성에 대해서는 1 a 24-25의 *en hypokeimenō*에 대한 정의 참조.

갈래짓는 『형이상학』⁶⁾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범주론』의 존재론은 다채롭다. 그것은 구체적인 개물들과 성질들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종과 유들의 존재까지 고려에 넣는다. 그러나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범주론』의 사분(四分)과 『형이상학』의 양분(兩分)은 공히 존재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정도로 기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 위에 터잡혀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비실체적 존재자들은 존재적으로 실체적 존재자들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상의 일정한 점을 차지하는 대상들의 존재론적 자립성 및 우위성과 관련된 이러한 반(反)플라톤적인 논조를 제외한다면 별다른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또한 그 두 존재론이기도 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론 전서』 상권 제27장(43 a 25-43)에서는 존재자들을 크게 네 갈래로 분류할 작정이었던 것 같다. 유의미한 문장들의 주어 자리에만 (그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것들 — 개물들 — 과 그 술어 자리에만 (그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것들 — 범주들 — 및 참된 문장의 그 어느 자리에나 (그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것들 — 개념들 — 이 바로 그것들이다.⁷⁾ 모르긴 몰라도 『분석론 전서』의 삼분(三分)은 『범주론』과 『형이상학』의 중간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리라.

2. 서술의 두 틀

『범주론』 제2장에서 존재자들이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서술의 두 틀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kath' hypokeumenou legesthai*)와 ‘기체에 기속하다’(*en hypokeumenō einai*) — 및 그 각각의 부정형(否定形) — 이다. 이 두 틀을 통해 존재자들은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으로 나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체적인 것과 비실체적인 것으로 나뉜다. 일례로 실체적이며 보편적인 것 — 위의 유형 (1) — 을 특징지움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기체에 대해 단언된다고 함으로써 그것을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가 하면, 그것이 기체에 기속하지는 않는다고 함으로써 그것을 비실체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한다. 비실체적이며 개별적인 것 — 위의 유형 (2) — 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비실체적인 것임은 그것이 기체에 기속하는 것임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개별적인 것임은 그것이 기체에 대해 단언되지 않는 것임을 통해 특징지어진다. 이밖에 실체적이며 개별적인 것 — 위의 유형 (4) — 과

6) 제4권 제2장, 1003 b 6-10과 제7권 제1장, 1028 a 13-20 등 참조

7) 이러한 해석에 관해서는 Patzig (1959), 15-16, 주 3 참조

비실체적이며 보편적인 것 — 위의 유형 (3) — 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즉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와 ‘기체에 기속하다’ 및 그 각각의 부정형들 중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며 동원된다.

『범주론』에서는 이처럼 본질적 서술은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라는 표제 하에 등장하고, 부대적 서술은 ‘기체에 기속하다’라는 표제 하에 언급된다.⁸⁾ 그러나 논자들 가운데에는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는 언어적 내지 문법적인 성격의 서술이고 ‘기체에 기속하다’는 형이상학적 내지 존재론적인 성격의 서술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⁹⁾ 이들은 따라서 『범주론』의 *hypokeuменon* 개념도 양의적이라고 본다. 즉 ‘휘포케이메논에 대해 단언되다’의 그것은 문법적 주어이고 ‘휘포케이메논에 기속하다’의 그것은 기체라는 것이다.¹⁰⁾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범주론』 제2장의 사분(四分)은 *onta* (1 a 20), 즉 존재자들에 대한 것이지 이름들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휘포케이메논에 기속하는 것이건 휘포케이메논에 대해 단언되는 것이건 모두 존재자이다. 바꾸어 말해서 그것들은 ‘linguistic items’¹¹⁾가 아니라, 그것들과 고리지어져 있는, 즉 그것들을 통해 표현되는 사물들이다. 『범주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 사물들이지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하고 있는 사물들은 언어적으로 지칭되는 한에서의 사물들이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범주론』에서 언급하는 *onta*는 요컨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한에서의 사물들이다.”¹²⁾ 그러므로 ‘휘포케이메논에 대해 단언되다’와 ‘휘포케이메논에 기속하다’가 서로 다른 차원을, 즉 한편으로는 언어적이고 문법적인 차원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문제의 휘포케이메논도 한번은 문법적 주어를 의미하고 또 한번은 실체, 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휘포케이메논은 그것에 대해 어떤 것이 단언되고 있는 무엇과 그것에 어떤 것이 기속하고 있는 무엇일 따름이다.

8) 서술과 관련하여 ‘본질적’(kath' hauto)이니 ‘부대적’(kata symbebekos)이니 하는 말은 『형이상학』에서나 나오지 『범주론』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9) von Fritz (1931), 461 이하, Chen (1957), 148 이하

10) von Fritz (1931), 461, Barthlein (1968), 239, Lloyd (1955/56), 58 이하, Pronay (1980), 47 이하

11) 이것은 Moravcsik (1967b), 126에 나오는 표현이다

12) Patzig (1973), 69 요는 존재자가 문제라는 점에서는 『범주론』 제2장, 1 a 16 이하와 제4장, 1 b 25 이하에 나오는 *legomena*의 경우 역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범주 도식은 요컨대 『범주론』에서 문장으로 결합되지 않은 낱말들, 즉 결합되어 문장을 이루게 되면 그 주어와 술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표현들에 의해 지칭되는 사물들의 유를 구분하는 틀로 소개된다.

3. kata tinos의 구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emai*란 곧 *einai ti*이다.¹³⁾ 온갖 존재자들의 경우, 그것은 ‘실체이다’거나 ‘성질이다’ 아니면 ‘그 밖의 다른 한 범주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범주론』에서는 이 모든 서술의 형식들이 ‘기체에 대해 서술되다’와 ‘기체에 기속하다’라는 두 가지 기본 구조로 환원되고 있다.¹⁴⁾ 그러면 그것들 각각을 통해 노정되는 존재론적 연관은 무엇인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하나하나를 좀더 깊이 살펴보자. 먼저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의 경우부터 보자.

기체가 되는 어떤 것에 기속한다는 개념과는 달리, 기체가 되는 어떤 것에 대해 단언된다는 개념의 경우, 문단 1 a 20-b 9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다. 기껏해야 예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언질이 『범주론』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체에 대해 단언된다는 것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는 유관한 다른 문단들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것들을 통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먼저 『범주론』 제3장을 보자.

일자(一者)가 기체로서의 타자(他者)에 대해 서술되는 경우,¹⁵⁾ 서술되는 것에 대해 단언되는 모든 것은 문제의 기체에 대해서도 단언될 터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한 개인에 대해

13) Owen (1960), 165와 Owen (1965a), 76-77 참조

14) Moravcsik (1967a), 85와 Graeser (1983), 34 이하 참조.

15) *hotan heteron kath' heterou katēgorētai hōs kath' hypokeimenou*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에서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 말고도 ‘기체에 대해 서술되다’(*kath' hypokeimenou katēgorēsthai*)를 자주 구사한다 이 점에 주의, 논자들 가운데에는 전자는 종속적 서술이고 후자는 명목적 서술이라는 식으로 보는 아들(예 Graeser [1983], 36)이 있다 물론, 제5장, 2 a 27 이하에서처럼, 기체에 대해 서술되다가 의심할 여지없이 명목적 서술을 표현하고 있는 바, 보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두 표현이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대치될 수 있는 보기들도 많다 2 a 33-35, 2 b 6, 2 b 16-17, 3 a 10-14 등 그리하여 양적으로 보면 문제의 두 표현은 동치로 쓰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예 von Fritz [1931], 478 이하, Tugendhat [1958], 23, de Rijk [1978], 91 등) 그러나 『범주론』에서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는 종속적 서술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고 ‘기체에 대해 서술되다’는 명목적 서술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의 두 표현을 일관성 있게 구사하지 않는 데 있겠다 나는 두 갈래의 해석을 절충하여 2 a 27 이하에서와 같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은 곳에서는 두 표현을 그냥 서로 대치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명실상부한 서술(full predication)과 명목적 서술(nominal predication)간의 차이는 Sellars (1957), 689에 잘 드러나 있다 아울러 Allen (1973), 386도 참조

단언되거나, 동물은 인간에 대해 단언된다. 그러므로 동물은 문제의 개인에 대해서도 단언될 터이다. 문제의 개인은 인간이자 동물이기 때문이다 (I b 10-15)

여기에는 기체에 대해 단언된다는 관계가 어떤 계도 위를 움직이는 것인지가 밝혀져 있다. 서술되는 것에 대해 단언되는 (모든) 것, 서술되는 것 및 기체라는 세 점을 잇는 계도가 바로 그것인데, 제5장에서는 이 세 점들이 각각 ‘유’(genos), ‘종’(eidos), ‘개’(個, atomon)로 다듬어져 등장한다(3 a 37-39). 문제의 사태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격 삼단논식을 엄두에 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¹⁶⁾ 인간이라는 종개념은 여기서 매개념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인데, 개와 종과 유를 각각 C, B, A로 약칭하면, 문제의 사태는 다음과 같이 바꿔 표현할 수 있다: B는 C에 대해 단언되고, A는 B에 대해 단언된다; 그러므로 A는 C에 대해서도 단언된다. 현대적 용어로 말한다면 이는 곧 명제들의 전도(傳導, transitivity)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이와 관련, 아크릴(J.L. Ackrill)과 팻치히(G. Patzig)는 이의를 제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는 (한) 인간이다”와 “(한) 인간은 (한) 동물이다”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유에 대한 종의 관계와 종에 대한 개별적 사물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먼저 아크릴에 따르면 예의 두 언명간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상이한 기능에 있다.¹⁸⁾ 무슨 말이나 하면 한번은 ‘인간’이 해당 문장의 술어로 등장하지만, 또 한번은 주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즉 첫 번째 경우에는 ‘인간’이 단언되는 데 반하여, 두 번째 경우에는 인간에 대해 다른 것이 단언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팻치히는 예의 두 언명의 기능상의 차이를 계사 ‘ist’의 상이한 의미에서 찾는다.¹⁹⁾ 한번은 그것이 원소-집합 관계의 표현으로 등장하지만, 또 한번은 한 집합이 다른 한 집합의 부분집합임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문제의 개별적 사물은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종이 곧 동물인 것은 아니다. 개별적 사물과 종과 유를 각각 C, B, A로 놓고, 원소-집합의 관계와 부분집합의 관계를 각각 기호 ‘ ϵ ’과 ‘ c ’로 표현한다면, 개별적 사물과 종과 유간의 논리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될 수 있다: $C\epsilon B, BcA, C\epsilon A$.²⁰⁾ 요컨대 아크릴과 팻치히의 논조대로라면 단언되는 관계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른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려 방식 역시 그러했겠느냐는 것이다. 대답은 부정적인

16) Oehler (1984), 191 이하 참조.

17) Barthlein (1968), 234는 이것의 뿌리가 플라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8) Ackrill (1963), 76

19) Patzig (1973), 66

20) 이것은 Oehler (1984), 192에 따른 것이다

것 같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정말 그러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삼단논법은 현재와는 다른 형태를 취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변증론』 제5장의 논설에 따르면 기체에 대해 단언될 수 있는 것은 종과 유만이 아니다. 정의나 그 한 부분인 종차도 기체에 대해 단언될 수 있다.

그러나 제일실체들의 경우, 그 정의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름도 해당 기체에 대해 서술된다 — 인간의 정의는 문제의 개인에 대해 서술된다. 그러나 동물의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 그러므로 실체는 기체에 기속하는 것들에 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실체만 그런 것은 아니다. 종차 역시 기체에 기속하지 않는 것들에 속한다. 왜냐하면 육지에 산다는 것과 두발 달렸다는 것은 기체로서의 인간에 대해 단언되긴 하지만, 기체에 기속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두발 달렸다는 것이나 육지에 산다는 것이 인간에 기속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뿐만 아니라 종차의 정의 역시 종차가 단언되고 있는 바의 것에 대해 서술된다. 예를 들어 인간에 대해 육지에 산다는 것이 단언된다면, 육지에 산다는 것의 정의 역시 인간에 대해 서술될 터이다. 인간은 육지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3 a 17-28)

마찬가지로 종차들 역시 종 및 개별적 사물들에 대해 서술된다. 그리고 제일실체들은 종과 유들의 정의를 허용하거나, 종은 유의 정의를 허용한다. 서술되는 것에 대해 단언되는 모든 것은 그 기체에 대해서도 단언될 터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과 개별적 사물들 역시 종차들의 정의를 허용한다 (3 b 1-7)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유들은 그것들에 딸려 다니는 종차들보다 우월하다. 종차들은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구성되는 종들보다 우월하다.²¹⁾ 종은 유와 종차를 통해 구성된다. 정의는 따라서 문제의 유와 종차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종차는 한 사물의 부대적인 성질이 아니다.²²⁾ 그러므로 종차는 해당 유와 마찬가지로 해당 종에 대해 단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차가 문제의 종에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유와 종차는 해당 종과 관련하여 동일한 기능을 한다. 양자는 모두 해당 종의 개념적 부분들이다. 바꾸어 말해서 그것들은 각기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 즉 정의의 물음에 대해 제시되는 대답의 한 부분을 이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종차를, 그것이 종 및 유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와 함께 묶어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

21) 『변증론』 제6권 제6장, 144 b 10-11 “종차는 유보다는 후위의 것이어야 하나, 종보다는 선위의 것이어야 한다”.

22) 『변증론』 제6권 제6장, 144 a 24-27 “유가 그러하듯 종차 역시 부대적 성질들에 속하지 않는다. 한 사물의 종차가 그 사물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입장은 종차를 밝히면 굳이 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논급²³⁾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다. 결국 종차가 제이실체 전체를 대신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논급된 점들은 종과 관련해서는 종차에 잘 들어맞으나 유와 관련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변증론』 제6권 제6장, 144 b 10-11에 드러나 있듯이, 종차는 해당 유에 대해서는 단언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육지에 산다는 종차는 동물이라는 유에 의존한다.

위의 인용문 서두(3 a 17-18)에도 밝혀져 있듯이, 기체에 대해서는 이름도 단언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범주론』 제5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하거니와, 기체에 대해 단언되는 것의 경우 그 이름과 그 정의는 문제의 기체에 대해 필히 서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하나의 기체, 즉 개별적 인간에 대해 단언되는데, 서술되기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이다(인간은 개별적 인간에 대해 서술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의 역시 개별적 인간에 대해 서술될 것이다(개별적 인간도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체에 대해서는 이름과 정의가 모두 서술될 터이다. (2 a 19-27)

‘언급된 것’이란 물론 가깝게는 바로 그 위의 제일실체와 제이실체에 대한 규정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으나,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제2장의 서술 문제에 대한 정의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일 것이다. 또 이름과 정의가 기체에 대해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언어와 대상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기본 상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정립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존재자 갑이 존재자 을에 대해 단언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갑은 을에 대해 진리치가 문제되는 가운데 서술된다.
- (2) 갑의 이름은 해당 문장의 술어 자리를 차지한다.
- (3) 문제의 문장에서 갑의 이름은 갑에 대한 정의의 전부 또는 그 일부분을 통해 진리치가 바뀌지 않으면서도 대치될 수 있다.²⁴⁾

조건 (3)이 말하는 것은 단언하는 일(das Aussagen)은 어떤 한 기체의 종과 종차 및 유의 테두리

23) 『범주론』 제3장, 1 b 16 이하 참조.

24) Frede (1978), 19-20과 Oehler (1984), 180 참조.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기체에 대해 진리치가 문제되는 가운데 서술되는 모든 것은 그냥 말해지는(*gesagt*) 것일 뿐이다. 그것은 더부살이식 현존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양은 한 개별적 인간에게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그 정의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 하양은 그 인물에 대해 그냥 말해질 수 있을 뿐이다. 개념상 하양은 색이라는 종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서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종속적 내지 귀속적 성질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적 성질들만 부각될 뿐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과 같은 것은 한 개인에 대해 단언될 수 있다. ‘인간’이라는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 정의도, 즉 두발 달린, 육지에 사는,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도 그 인물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요컨대 종은 물론이거니와 그 유와 종차도 해당 기체에 대해 단언될 수 있다. 단언되는 것은 그러므로 해당 기체보다 더 보편적인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해서 단언될 수 있는 것은 보편자뿐이지 개별자는 아니다. 이렇듯 단언된다는 관계는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갈라놓는다. 물론 실체적인 것들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비실체적인 것들의 경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기체에 대해 단언된다는 서술의 틀은 결국 같은 범주에 속하는 존재자들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틀이다. 그러므로 이 틀이 쓸모 있게 되는 경우는 실체적 존재자들 가운데서건 비실체적 존재자들 가운데서건 간에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구별될 때이다.

기체에 대해 단언된다는 관계는 최소한 겉으로는 『변증론』 제1권 제9장에 피력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응한다:

그런 유의 것들[실체, 양, 질 등] 각각은 어떤 것인 무엇을 지시한다. 그 각각이 자기 자신에 대해 단언되건 또는 해당 유가 그 각각에 대해 단언되건 간에 말이다 (103 b 35-37)

그러나 『범주론』에서는 『변증론』에서 언급된 경우(예를 들어 “갑은 사람이다”)가 좀 달리 해석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범주론』식으로라면 문제의 사태는 *auto peri hautou*(103 b 36)로 서가 아니라 *heteron kath' heterou*(1 b 10)로 기술되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²⁵⁾ 『범주론』의 맥락에서 *heteron kath' heterou*는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장에서 각각 주어와 술어 자리를 차지하는 갑과 을은 존재자들로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의의 내용에서가 아니라 존재론적 지위에서 말이다.

25) 『분석론 전서』 상권 제27장의 입장도 그러하다 43 a 30-32 *ta de kai auta allōn kai autōn hetera, hoion anthrōpos kalhou kai anthrōpou zōon*([존재자들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들에 대해 서술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들이 서술된다 일례로 인간은 칼리아스에 대해 서술되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동물이 서술된다) 그러나 『분석론 후서』 상권 제22장, 83 a 22의 입장은 오히려 『변증론』의 그것과 일치한다

4. en tini의 구조

『범주론』 제1장에 마련되어 있는 구별에 따라 말한다면, ‘기체에 대해 단언되다’의 관계는 쉬노뉘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²⁶⁾ 그것은 ‘분석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체에 기속하다’의 관계는 파로뉘몬하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²⁷⁾ ‘기주에 기속하다’라는 틀을 통해 밝혀지는 것은 한 서술문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자와 그 술어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자간의 ‘종합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장 “철수는 근면하다”가 말하는 것은 철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는 어떤 인물인가이다. 그는 그에게 근면함이 현전하는 한에서 근면하다고 표현되는 것이다. ‘기체에 기속하다’라는 틀은 이처럼 한 서술문의 술어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자가 그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자에게 기속 또는 ‘더부살이’ 하고 있음을 언표하는 데 쓰인다. 이 관계는 나중에 가서, 즉 『형이상학』과 같은 곳에 가서 실체와 부대적인 것(*symbebēkos*)간의 관계로 언급되게 되는 관계와 폭넓게 합치하는 것 같다. 또 그것은 겉으로는 『변증론』 제1권 제9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는 구조에 대응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술어의 유들 중 어느 하나]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단언되게 되면(*hotan peri heterou [legētai]*), 그것은 그 어떤 것인 무엇이 아니라 양이나 질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의 술어들 중 어느 하나를 지시하는 것이다. (103 b 37-39)²⁸⁾

그러나 『범주론』에서는 문제의 관계가 단언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기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속 또는 더부살이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범주론』 제2장에서 *en tini*, 즉 더부살이식 현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기체[속]에’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속]에 들어 있긴 하지만 [그]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요, 자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a 24-25)²⁹⁾

26) 『범주론』 제5장, 3 a 33-36 참조.

27) 『범주론』 제8장, 10 A 28-32 참조. 아울러 Graeser (1983), 38과 Harter (1975), 4도 참조 그러나 그것을 호모뉘몬한 것으로 보려는 이들도 있다(예. Hamlyn [1961], 114-116)

28) 이와 함께 『분석론 후서』 상권 제22장, 83 a 26-28과 『형이상학』 제7권 제4장, 1030 a 3-5도 참조

이것은 그 구조상 하나의 정의이다. 피정의항은 기체에 기속하는 존재자이고, 유는 어떤 것에 들어 있는 것이다. 종차로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하나는 부분으로서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들어 있는 바의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규정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존재자 갑이 존재자 을에 기속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갑은 을의 부분이 아니다.
- (2) 갑은 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현존할 수 없다.³⁰⁾

그러면 이 조건들 각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 '부분'의 문제

먼저 기속하는 존재자는 그 기체의 부분이 아니라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부터 살펴보자. 물론 대답은 문제의 '부분'(meros)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부분'이라는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거의 전문용어처럼 쓰인다. 특히 '전체'(holon)와 대립적으로 쓰일 때 그러하다. 『범주론』의 '부분'은 대체로 손, 발, 머리 같은 기관들을 가리킨다(8 a 18 이하, 15 b 23 이하). 그러나 7 a 7 이하가 시사하듯이 그것은 배(船)의 키처럼 무생물의 구성 부분을 가리키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풀이되어온 바에 따르면, 기속의 규정에 나오는 '부분'은 물성적(物性的) 부분을 의미한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자. 기속한다는 것은 비실체적 존재자들의 징표이다. 그러나 실체들의 물성적 부분들 역시 기속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자신들의 기저에 가로놓여 있는 전체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몸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손이나 발의 경우를 보자.³¹⁾ 그것들은 물론 여전히 손과 발로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또는 그 각각의 활성태에 비추어 말한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손이나 발이 아니다.

29) *en hypokeimenō de legō ho en tuni mē hēs meros hyparchon a dynaton chōris enai tou en hō estin* Ackrill (1963)의 번역 By "in a subject" I mean what is in something, not as a part, and cannot exist separately from what it is in Oehler (1984)의 번역 Mit "in einem Zugrundeliegenden" meine ich, was in etwas ist, nicht als ein Teil, und nicht getrennt von dem existieren kann, worin es ist. 이것은 포르휘리오스와 심플리키오스 이래 술한 번역자들과 주석자들에 의해 수용되어온 전통적 해석이다 한편 3 b 34 이하, 4 b 34-35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낱말이나 한 구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면 *legen*의 단수 일인칭을 사용하곤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개념 규정의 경우라 하더라도 *legetai*가 쓰인다 예컨대 5 a 38-39, 6 a 36-37, 8 a 16, 9 b 1 이하 등 참조

30) Ackrill (1963), 74와 Frede (1978), 26, 30 및 Oehler (1984), 181 참조

31) 『정치학』 제1권 제2장, 1253 a 19 이하 참조

그것들은 기껏해야 ‘호모뉘모스하게’만 손이나 발일 뿐이다. 그 각각에 귀속되어 있는 능력들이 더 이상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한 부분이 어떤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은, 즉 어떤 한 부분이 활성화대상으로 어떤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해당 전체의 한 부분일 때뿐이다. 바꾸어 말해서 부분은 해당 전체의 부분일 때에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부분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들의 물성적 부분들 자체도 실체들 속에 드는 것으로 치부한다. 『범주론』 제7장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한다:

그러나 머리와 손 및 실체들인 이런 유의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들 자체가 정확히 무엇인가는, 그것들이 무엇과 관련하여 그렇게 얘기되는 것인가를 꼭 알지 않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8 b 15-18)

만약 기속한다는 것이 위의 두 번째 조건을 통해 완벽하게 정의된다면, 그것은 성질들에 대해서만 유효한 기준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속의 조건은 실체적 부분들에 의해서도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속의 조건은 위와 같이 둘이다. 기속의 조건들 중 첫 번째 것은 요컨대 실체들, 즉 물성적 부분들이 문제의 *en hypokeimenō einai*의 의미로 기체에 기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러한 해석은 『범주론』 제5장의 한 문단을 통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실체들의 부분들이 그 기체로서의 전체에 들어 있는 것들이라고 하여 혹 그것들을 실체가 아닌 것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기체에 들어 있는 것들에 대해 말했던³²⁾ 것은 어떤 무엇에 부분들로 들어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3 a 29-32)

이에 앞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온갖 실체의 공통적 특성은 기체에 기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립을 내놓은 바 있다(3 a 7-8). 이제 그는 기속의 첫 번째 조건과의 관련 하에서 실체적 부분들을 더부살이식 현존의 마당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 이유의 일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는 실체의 물성적 부분에 지나지 않는 실체들 역시 기체에 기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부분’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결론은 그것은 물성적 부분을 말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논자는 후레데(M. Frede)와 팻치히인데, 그들의 지론에 따르면 기속의 첫 번째 조건을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더부살이식 현존의 마당에서

32)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elegeto*(3 a 32)라고 함으로써 1 a 24의 *en hypokeimenō*의 정의를 언급하고 있다.

제외시키고자 했던 것은 물성적 부분들이 아니라 개념적 부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해석의 전거로 그들이 드는 것은 종차 역시 실체들이나 마찬가지로 기체에 기속하지 않는다(3 a 22)는 언명이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정립은 기속의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주론』 제3장의 논설로부터 귀결되듯이, 유가 다르면 종차도 다르기 때문이다. 후레데에 따르면, 유가 다르면 종차도 다르다는 것은 곧 종차들은 각각 고유한 유를 갖고 있다는 말이거니와, 따라서 종차도 그것 없이는 자신의 현존이 불가능한 바 일정한 대상 영역을 갖고 있는 셈이요, 또 그럼으로써 기속의 두 번째 조건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차들을 더부살이식 현존의 마당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려면, 문제의 ‘부분’이라는 표현을 개념적 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후레데는 이처럼 종차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론을 편다. 그러나 『범주론』에서 종차는 좀 각별한 위치를 점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³⁴⁾ 종차와 유는 해당 종을 정의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해당 종의 개념적 부분들로서 그 종에 대해 단언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와 종차가 그토록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차들은 실체들로 치부하지 않는다. 심플리키오스의 설명에 따르면 종차는 정재(定在, *to enai*)가 아니라 상재(相在, *to toionde einai*)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⁵⁾ 그렇다고 하여 종차가 성질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유와 종차는 개념적 부분들로서 해당 기체를 단적으로 구성하는 것인 데 반하여, 기체에 기속하는 성질은 이미 구성된 기체에 추가로 덧붙게 되는, 따라서 부대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팻치히는 제이실체의 제일실체에 대한 의존성은 비실체적인 것들의 실체에 대한 의존성에 대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속이 문제의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만 정의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종도 개별적 인간에 기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명히 말하듯이, 제이실체는 제일실체에 기속하지 않는다(1 a 21-22, 3 a 7 이하) 그래서 팻치히는 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속의 첫 번째 조건에 나오는 ‘부분’을 개념적 부분으로 해석한다.³⁶⁾ 그러나 저 두 가지 유형의 의존성이 정말 대비적인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같은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종의 현존이 의존해 있는 바 인간적 개체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3) Frede (1978), 29 Barthlein (1968) 역시 같은 진영에 속한다 그(236, 주 54)는 특히 『형이상학』 제5권 제25장, 1023 b 22-25와 『자연학』 제4권 제3장, 210 a 18-20을 전거로 들어가며 『범주론』의 ‘*mē hōs meros*’(1 a 24)를 ‘nicht als Definitions-Stück’의 의미로 새긴다.

34) 이 점은 Oehler (1984), 187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Kramer (1973)와 B. Jones (1975), 161 이하 및 Loux (1978) 참조

35) Simplicios, *In Cat*, 98, 6-9

36) Patzig (1973), 70, 주 2

그러나 기속의 두 번째 조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식으로 특출난 개체가 현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의 의존성이 드러나 있는 바 적어도 하나의 구체적 기체를 그 조건은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팻치히의 가정은 허용될 수 없거니와, 따라서 그의 해석은 근거를 잃게 된다. 줄여 말해서 기속의 첫 번째 조건과 관련, 아리스토텔레스가 더부살이식 현존의 마당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던 것은 물성적 부분이지 개념적 부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2) 불가리 조건

그러면 이제 기속의 두 번째 조건 “갑은 을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는 존립할 수 없다” 또는 “갑은 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현존할 수 없다”를 살펴보자. 이 조건, 즉 아크릴의 표현대로 ‘불가리(不可離) 조건’³⁷⁾은 을이 더 이상 존립치 않게 되면 갑도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게 됨을 말한다. 갑의 현존은 을의 현존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기속 또는 더부살이식 현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담지자가 늘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기속하는 것은 비실체적인 것들이요 그 담지자는 실체적인 것들이거니와, 그것들 각각은 다시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이런 물음이 제기된다: 비실체적 개별자들은 실체적 개별자들에게만 기속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체적 보편자들에게도 기속할 수 있는 것인가? 비실체적 보편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체적 보편자들만인가, 아니면 실체적 개별자들도 그것들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개별적 성질들이다. 왜냐하면 통상 성질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개별적인 것은 실체들에 국한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³⁸⁾ 성질의 개별성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되어야 하는 것일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전통적 해석³⁹⁾이 내놓는 해결책은

37) Ackrill (1963), 74. ‘inseparability requirement’.

38) 실체 이외의 범주들에 속하는 존재자들이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으로 나뉘는 것은 오직 『범주론』에서 만의 일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 제5장에서 실체들을 ‘제일의’ 것들과 ‘제이의’ 것들로 나누는데,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면, 그는 그 밖의 다른 범주들에 속하는 존재자들도 그런 식으로 구별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39) 전통적 해석은 Porphyrios나 Pacius 같은 고대 주석가들에 의해 개진된 견해로서 줄곧 많은 이들에 의해 대변되어 왔다. 금세기의 대표적 논자들은 대체로 Ross (1923), 24, 주 1; J. R. Jones (1949), 152-170; Anscombe/Geach (1961), 7-10; Ackrill (1963), 74-75, 83, 109; Harter (1975), 3; B. Jones (1972), 101-123; B. Jones (1975), 151; Heinaman (1981), 295-307; Oehler (1984), 181 이하 등이다. 이 밖에도 Stout (1921/22), Moore, Stout, and Hicks (1923), 95-128 참조.

개별적 성질들은 그 담지자를 통해 개별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하얀 색은 이를테면 어떤 한 사람의 하양 — 하얀 피부 — 을 나타냄으로써 개별적이게 된다. (하나의) 하얀 색이란 그러므로 다름아닌 한 개체의 일정한 색깔이다. 개별적 성질들의 개별성을 이렇게 새기는 것은 물론 문제의 불가리 조건 때문이다. 그것에 따르면, 기속하는 존재자는 자신의 기체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데, 해당 담지자를 통해 개별화되는 개별적 성질들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그런 식의 개별적 성질들은 그 담지자가 더 이상 존립치 않게 되면 덩달아서 존립치 않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다른 한편 제일실체들의 유일무이성도 고려에 넣고 있다. 개별적인 것의 결정적인 기준은 제일실체들의 유일무이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 『명제론』 제7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개별적인 것은 많은 것들에 대해 서술되지 않는다(17 a 40). 비실체적인 것들의 영역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유일무이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역시 해당 담지자를 통하여 개별화되는 길밖에 없다. 결국 철수네 외할아버지의 턱수염에 현전하는 하양은 이 정의대로라면 또 다른 실체의 하양일 수는 없다.⁴⁰⁾ 유일무이성의 논변은 또한 기속하는 개별자가 해당 개별적 담지자의 제이실체까지 기속의 기체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이실체까지 기속의 기체로 삼게 되면 다수의 것들에 대해 서술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제이실체를 기속의 기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성질들뿐이다. 그러나 보편적 성질들 역시 개별적 실체들에는 기속할 수 없다. 보편적 성질들이 개별적 실체들에도 기속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보편적인 것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더부살이식 현존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결국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 (1) 개별적 성질들은 각기 해당 담지자를 통해 개별화된다.
- (2)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에만 기속할 수 있다.
- (3)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에만 기속할 수 있다.⁴¹⁾

그러나 기속의 문제를 전통적 해석과는 달리 풀이하려는 시도 또한 없지 않다.⁴²⁾ 무엇보다도 1960년대에 들어와 논쟁에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아크릴이다. 아크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40) Frede (1978), 24 참조

41) Oehler (1984), 182

42) 그 대표적인 예는 Owen (1965b), 97-105와 Frede (1978)이다 그러나 Moravcsik (1967a), Allen (1969), 31-39, Matthews/Cohen (1968), 630-655도 참조.

론』에 대한 자신의 주해(1963)에서 대체로 전통적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오웬(G.E.L. Owen)은 기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크릴과는 다른 해석을 시도했다. 그의 좀 이색적인 풀이에 따르면⁴³⁾ 개별적 성질들의 개별화는 그것들이 하나의 개별적 실체를 각자의 담지자로 갖게 됨으로써가 아니라 성질들의 최종적 종화(種化, specimen), 즉 더 이상 특수화될 수 없는 그것들의 기미(氣味, shade)를 통해 이뤄진다. 예의 'leukon ti' — 철수네 외할아버지의 턱수염에 현전하는 하양 — 는 그의 풀이대로 하면 해당 담지자의 개별적 하양이 아니라 특수한 밝은 빛깔이다. leukon ti는 요컨대 leukon이라는 한 보편적인 색의 최종적인 종화 또는 기미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원칙적으로 다른 신체들에도 현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그러나 오웬의 견해에 대한 반박의 주된 원천이기도 하다. 개별적 성질들이 원칙적으로 되풀이하여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개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 개별적인 것들의 개별성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으며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단적으로 그 어떤 기체에 대해서 건 단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 중] 일부가 기체에 기속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1 b 6-8)

이어서 그는 개별적 문법 지식을 예로 들고 있다. 이것은 이 언명이 제일실체에만 타당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풀어 말하면 비실체적인 것들의 경우에서도 개별적인 것은 담지자를 바뀌가며 되풀이하여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hen)가 아니라, 일회적이라는 의미에서, 즉 절대적 개별성의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그것이 전자의 의미로 하나라면, 그것은 '수적으로 하나'(arithmō hen)가 아니라 '종적으로 하나'(eidei hen)일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개별적 성질들은 그 담지자를 통해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전통적 이해 방식에서 이탈하기는 후레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설을 인용한다:

또 색은 물체에 기속하거나, 따라서 그것은 개별적 물체에도 기속한다. 그것이 어떤 한 개별적 물체엔가에 기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어떤 물체에도 기속하지 않는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2 b 1-3)

43) Owen (1965c), 98 이하

44) 숫적으로 하나와 종적으로 하나 간의 구별에 관해서는 『변증론』 제1권 제7장, 103 a 8 이하 참조

이 문단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편자로서의 색이 보편자로서의 물체에 현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별적 색조들 역시 개별적 물체들에 현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후레데는 보편자로서의 색은 개별적 대상을 그 거처로 삼는다고 해석한다.⁴⁵⁾ 이것은 물론 2 b 1의 ‘색’이 보편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새기는 데서 연유하는데, 그가 그것을 그렇게 새기는 것은 예의 인용문과 그 바로 위의 문장(2 a 36 이하)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2 a 36 이하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단언되는 관계이지 더부살이식 현존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후레데가 또 다른 전거로 제시하고 있는, 예의 인용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무리하는 문장은 그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기체로서의 제일실체들에 대해 단언되거나 기체로서의 그것들에 기속한다. (2 b 3-5)

이는 곧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편적 성질들과 개별적 실체들 간의 서술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에는 보편적 성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의 기체의 종차가 유념되고 있지 않는 한, 단언되는 관계가 문제되고 있을 리는 없으므로, 문제의 존재자들은 기속의 관계를 통해서만 결합될 수밖에 없다. 줄여 말해서 보편적 성질들 역시 개별적 실체들에 기속한다는 것이다.

후레데는 또 개별적인 것 역시 보편적인 것에 기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을 전거로 든다.

이밖에도 제일실체들이 가장 엄정한 의미에서 실체들로 불리는 까닭은 그것들이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의 기저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일실체들이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식으로 제일실체들의 종과 유들도 나머지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들에 대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서술되기 때문이다 (2 b 37-3 a 4)

‘나머지 모든 것들’(3 a 3)에는 개별적 성질들도 포함되어 있음은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를 통해 설명된다

왜냐하면 개별적 인간이 읽고 쓸 줄 안다⁴⁶⁾고 불리게 되면, 인간은 물론 동물도 따라서

45) Frede (1978), 26

읽고 쓸 줄 안다고 불리게 되기 때문인데, 그 밖의 다른 경우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3 a 4-6)

개별적 성질들은 그 각각의 개별적 담지자들 말고도 해당 제이실체들까지 그 거처로 삼는다는 말이다. 그러면 성질들은 어떤 식으로 기체로서의 종에 기속하는가? 후레데에 따르면 성질들은 기체로서의 종에 기속하기 위하여 그 종의 모든 개별적 대리자들에 기속할 필요는 없다. 문제의 종의 최소한 한 대리자를 기체로 삼기만 하면 그만이다.⁴⁷⁾ 후레데의 견해는 결국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보편적 성질들은 개별적 실체들도 그 담지자로 삼는다.
- (2) 개별적인 것들 역시 보편적인 것들에 기속할 수 있다.

후레데에 따르면 성질들은 개별적인 것이건 보편적인 것이건 간에 최소한 두 기체에 기속한다. 제이실체와 그것의 제이실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별적 성질들은 그 유일무이성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개별적 성질들 역시 다수의 기체들에 의해 나뉘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질들이 하나의 특수한 담지자를 통해 개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질들의 개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후레데는 이 물음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 한편 보편적인 것 역시 개별적인 것에 기속할 수 있다는 후레데의 입장은 기속의 불가리 조건을 전통적 해석과는 달리 이해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1 a 25-28에 나오는 예들에서 찾는다. 거기서는 먼저 개별적 문법지식이 예시된 다음, 이어서 개별적 하양의 예가 나온다: “개별적 하양은 기체에, 즉 물체에 기속한다. 왜냐하면 색은 모두 물체에 현전하기 때문이다”(1 a 27-28). 후레데는 여기서 ‘물체’를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의 해석대로 하면⁴⁸⁾ 존재자 값이 존재자 음에 기속하기 위해서는 값이 그 존재의 면에서 의존하고 있는 최소한 하나의 담지자만 있어도 된다. 기속한다는 것을 통해서는 고정된 짝 값과 음의 관계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각각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기체가 존립하는 바 값이라는 존재자들의 유가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체는 성질들이 현전하는 대상의 영역을 드러내 보여준다. 일례로 건강함의 기체로 기능하는 것은 동물이라는 유이다.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동물들

46) ‘읽고 쓸 줄 안다’는 ‘grammatikos’의 역어인데, 이를 Ackrill(1963)처럼 ‘grammatical’이라 적역하면 문제의 사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아 Oehler(1984)에 따라 ‘des Lesens und Schreibens kundig’의 의미로 새겼다.

47) Frede (1978), 27

48) Frede (1978), 27-28

뿐이기 때문이다. 또 기속의 가능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비실체적 영역이다. 대상 영역에 현전하는 것은 성질들뿐이기 때문이다. 기속의 기체는 이처럼 한 성질의 대상 영역을 명시하므로, 해당 기체는 늘 문제의 성질의 모든 구체적 담지자들을 포함한다는 식으로 보편적인 성격을 띤다.

후레데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주도면밀한 텍스트 분석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기속의 문제와 관련된 전통적 이해 방식에 대한 그의 반론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새로운 또는 수정된 해석에 대한 반론들 역시 설득력의 면에서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는 하이네만(R. Heinaman)과 윌러(K. Oehler)이다.⁴⁹⁾ 하이네만은 특히 비실체적 개별자란 어떤 종류의 존재자인가의 물음과 관련하여 오웬과 후레데를 논박, 전통적 해석 진영에 가담한다. 그에 따르면 비실체적 개별자들이란 성질들의 ‘원자적 종들’(atomic species)이 아니라 ‘개별적 보기들’(individual instances)이다. 그는 행동과 말(logos)을 개별적인 성질들의 유비적인 경우들로 간주, 4 a 10-16, 5 a 33-35, 10 b 26-29 등을 전거로 제시하며 그같은 논변을 펴낸다.⁵⁰⁾ 한편 윌러는 언어적 표현 수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의 색과 물체간의 관계는 개별자와 보편자에 대한 언급방식에 비추어 전통적 이해방식대로도 무리없이 설명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⁵¹⁾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문제는 오웬과 후레데의 대안적 해석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 상정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개별적 성질들의 유일무이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해석이라고 해서 미진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편이 낫다고 할진대 그래도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잘 이해하는 길인 것 같다.

기속의 문제에 대한 해석과 관련, 난점의 주된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존재자들을 네 갈래로 대별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론』에서 애써 강조하는 것은 실체라는 이름에 실로 값하는 존재자는 구체적인 개물들 뿐이라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존재자들은 도대체 현존하는 것들이 아니거나 현존한다고 얘기되더라도 그것은 엄정하지 못한 의미에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체적인 개물들의 종과 유 또한 간과해 버릴 수 없었던 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는 비실체적인 것들도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으로 구별한다. 물론 그럼으로써 문제가 복잡하게 되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범주론』 이외의 다른 저작들에서는 ‘제일’ 실체니 ‘제이’ 실체니 하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실체적인 것들 역시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으로 나뉘지도 않는다.

49) 아울러 Duerlinger (1970), 179-203도 참조

50) Heinaman (1981), 300 이하

51) Oehler (1984), 185

참 고 문 헌

(이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참조된 문헌만 수록한다.)

- Ackrill, J.L., *Aristotle's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Oxford 1963.
- Allen, R.E., "Individual Properties in Aristotle's *Categories*", *Phronesis* 14 (1969), 31-39.
- _____, "Substance and Predication in Aristotle's *Categories*", in: E.N. Lee, A. P.D. Mourelatos, and R. Rorty (eds.), *Exegesis and Argument: Studies in Greek Philosophy Presented to Gregory Vlastos*, Assen 1973, 362-373.
- Anscombe, G.E.M. and Geach, P.T., *Three Philosophers. Aristotle, Aquinas, Frege*, Oxford 1961, 4th 1973.
- Barthlein, K., "Zur Entstehung der aristotelischen Substanz-Akzidenz-Lehre",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50 (1968), 196-253.
- Chen, C.-H., "On Aristotle's Two Expressions: kath' hypokeimenou legesthai and en hypokeimenō einai. Their Meaning in *Cat.* 2, 1 a 20-b 9 and the Extension of this Meaning", *Phronesis* 2 (1957), 148-159.
- Duerlinger, J., "Predication and Inherence in Aristotle's *Categories*", *Phronesis* 15 (1970), 179-203.
- Frede, M., "Individuen bei Aristoteles", *Antike und Abendland* 24 (1978), 16-39.
- Fritz, K.v., "Der Ursprung der aristotelischen Kategorienlehre",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40 (1931), 449-496.
- Graeser, A., "Aspekte der Ontologie in der Kategorienschrift", in P. Moraux und J. Wiesner (Hrsg.), *Zweifelhaftes im Corpus Aristotelicum. Studien zu einigen Dubia. Akten des 9. Symposium Aristotelicum* (Berlin, 7.-16. September 1981), Berlin 1983,
- Hamlyn, D.W., "Aristotle on Predication", *Phronesis* 6 (1961), 110-126.
- Harter, E.D., "Aristotle on Primary Ousia",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57 (1975), 1-20.
- Heinaman, R., "Non-substantial Individuals in the *Categories*", *Phronesis* 26 (1981), 295-307.
- Jones, B., "Individuals in Aristotle's *Categories*", *Phronesis* 17 (1972), 107-123.
- _____,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Chapters of Aristotle's *Categories*", *Phronesis* 20 (1975), 146-172.
- Jones, J.R., "Are the Qualities of Particular Things Universal or Particular?", *Philosophical Review* 58 (1949), 152-170.
- Kramer, H.J., "Aristoteles und die akademische Eidoslehre",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 55 (1973), 119-190.
- Lloyd, A.C., "Neoplatonic Logic and Aristotelian Logic", *Phronesis* 1 (1955/56), 58-72.
- Loux, M., *Substance and Attribute. A Study in Ontology*, Dordrecht 1978.
- Mathews, G.B. and Cohen, S.M., "The One and the Many", *The Review of Metaphysics* 21 (1968), 630-655
- Moore, G.E., Stout, G.F., and Hicks, G. Dawes, "Are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Things Universal or Particular?",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 III (1923), 95-128.
- Moravcsik, J.M.E., "Aristotle on Predication", *Philosophical Review* 76 (1967a), 80-96.
- _____, "Aristotle's Theory of Categories", in: J.M.E. Moravcsik (ed.) *Aristotl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Garden City, N. Y. 1967b, 125-145.
- Oehler, K., *Aristoteles. Kategorien*, Berlin 1984.
- Owen, G.E.L., "Logic and Metaphysics in some earlier Works of Aristotle", in: I. During and G.E.L. Owen (ed.),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Goteborg 1960, 163-190.
- _____, "Aristotle on the Snares of Ontology", in: R. Bambrough (ed.),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London 1965a, 69-95.
- _____, "Inherence", *Phronesis* 19 (1965b), 97-105.
- Patzig, G., "Bemerkungen zu den Kategorien der Aristoteles", in: E. Scheibe und E. Süßmann (Hrsg.), *Einheit und Vielheit Festschrift für C.F.v. Weizsäcker zum 60. Geburtstag*, Göttingen 1973, 60-76
- _____, *Die aristotelische Syllogistik*, Göttingen 1959, ³1969.
- Rijk, L.M. de, "On Ancient and Mediaeval Semantics and Metaphysics [2]", *Vivarium* 16 (1978).
- Ross, W.D., *Aristotle*, London 1923.
- Sellars, W., "Substance and Form in Aristotle", *Journal of Philosophy* 54 (1957), 688-699.
- Stout, G.F., "The Nature of Universals and Propositions",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0 (1921/22).
- Tugendhat, E., *TI KATA TINOS. Eine Untersuchung zu Struktur und Ursprung aristotelischer Grundbegriffe*, Freiburg/Br. 1958, ³1982.

Zusammenfassung

Zugehörigkeit und Inhärenz

— Eine ontologisch-semantische Untersuchung zu den ersten fünf Kapiteln
der aristotelischen Kategorienschrift —

Seok-Whan Hahn

1. In Kapitel 2 der Kategorienschrift skizziert Aristoteles eine Grundeinteilung dessen, was ist (*onta*). Aristoteles nimmt nicht nur Gegenstände, sondern auch Eigenschaften von Gegenständen an; und zwar Eigenschaften in dem starken Sinn, daß sich Sätze über Eigenschaften nicht einfach auf Sätze über Gegenstände reduzieren lassen. Vielmehr sollen umgekehrt zumindest bestimmte Sätze über Gegenstände durch die Annahme von Eigenschaften erklärt werden. Daß es solche Sätze wie "Sokrates ist gesund" gibt, soll daraus erklärt werden, daß es nicht nur Gegenstände wie Sokrates, sondern auch so etwas wie Gesundheit gibt, was sich nicht als Gegenstand verstehen läßt, aber in bestimmten Beziehungen zu Gegenständen steht, mit Hinsicht auf die man dann von Gegenständen auch so etwas sagen kann wie, daß sie gesund sind. Neben dem Gegensatz zwischen Gegenständen und Eigenschaften nimmt Aristoteles aber auch noch einen Gegensatz zwischen Allgemeinem und Besonderem, zwischen Individuen und Universalien an. Zwar gebraucht Aristoteles in der Kategorienschrift keinen Ausdruck wie "universale" (*katholou*), aber er spricht von "Individuen" und stellt diese ihren Arten gegen über. Diese beiden Gegensätze aber, der zwischen Gegenständen und Eigenschaften und der zwischen Besonderem und Allgemeinem, fallen keineswegs, wie wir meinen konnten, für Aristoteles zusammen. Denn zum Allgemeinen rechnet Aristoteles nicht nur Eigenschaften, sondern auch die Arten von Gegenständen, die Genera, Species und Differentiae von Substanzen, welche strikt von Eigenschaften unterscheiden werden. Anders als in "Sokrates ist gesund" ist für Aristoteles in "Sokrates ist ein Mensch" nicht von einer weiteren Eigenschaft des Sokrates die Rede, sondern von zwei Substanzen, Sokrates und der Species Mensch. Die

Species ist etwas Allgemeines, aber nicht wie Gesundheit eine Eigenschaft. Auch gibt es für Aristoteles nicht etwa neben der Species Mensch noch so etwas wie die Eigenschaft, Mensch zu sein. Das Allgemeine umfaßt also sowohl Eigenschaften als auch Arten von Gegenständen. Andererseits versteht Aristoteles den Gegensatz von Allgemeinem und Besonderem so, daß es sich bei dem Besonderen oder Individuellen nicht nur um Gegenstände, sondern auch um Eigenschaften handeln kann. Folglich fallen die beiden Gegensätze keineswegs zusammen, sondern kreuzen sich vielmehr so, daß eine Vierteilung entsteht, eine Einteilung in individuelle Gegenstände, individuelle Eigenschaften, allgemeine Eigenschaften und allgemeine Gegenstände.

2. Auffällig für den heutigen Betrachter dieser Gliederung in vier Seinstypen ist vor allem die anscheinend widersprüchliche Sprechweise von "individuellen Eigenschaften". Denn Eigenschaften werden üblicherweise als ein Allgemeines angesehen, während Individuelles auf Substanzen beschränkt zu sein scheint. Außerdem ist nicht ohne weiteres erfindlich, wie die Individualität einer Eigenschaft sprachlich zum Ausdruck gebracht werden sollte. Der Lösungsvorschlag der traditionellen Interpretation, der von vielen anerkannt wird, besteht in der Annahme, daß individuelle Eigenschaften durch ihre Träger individualisiert werden. Diese traditionelle Interpretation wurde von den Kommentatoren folgendermaßen begründet. Die Untrennbarkeitsregel (1 a 25) fordert ihrer Ansicht nach, daß das In-etwas-Seiende mit seinem Subjekt zugrunde geht. Individuelle Eigenschaften, die durch ihre Träger individualisiert werden, erfüllen gerade diese Bedingung. Ferner wird angenommen, daß die Einzigartigkeit der ersten Substanzen ein ausschlaggebendes Kriterium alles Individuellen darstellt. In *De Interpretatione* 7 sagt Aristoteles, daß Individuelles nicht von vielen Dingen prädiziert wird. Die Individualisierung durch den Träger gewährleistet diese Einzigartigkeit für den nichtsubstantiellen Bereich. Das Argument der Einzigartigkeit verhindert darüber hinaus, daß das in-etwas-seiende Individuelle ebenfalls die zu dem individuellen Träger gehörende zweite Substanz als Subjekt des Inseins hat; anderenfalls wäre es von mehreren prädizierbar. Es ergeben sich daher als Hauptthesen der traditionellen Auffassung, daß (1) Individuelles nur in Individuellen als Zugrundeliegendem sein kann, (2) Allgemeines nur in Allgemeinem sein kann und daß (3) individuelle Eigenschaften durch ihre Träger individualisiert werden.

3. Gegen diese verbreitete Auffassung bezüglich der Individuierung von Eigenschaften hat G.E.L. Owen (1965) in einer repräsentativen Kontroverse mit J.L. Ackrill Stellung bezogen. Auch M. Frede (1978) weicht von der traditionellen Auffassung ab. Veranlaßt durch Textstellen aus Kapitel 5, schlägt Frede eine neue Interpretation des Inseins vor, die nicht zu den drei genannten Konsequenzen der herkömmlichen Auffassung führt. Nach Fredes Interpretation, die durch einige Textstellen nahegelegt wird, ergeben sich folgende neue Thesen: (1) Allgemeine Eigenschaften haben auch individuelle Substanzen als Träger, und (2) Individuelles kann ebenfalls in Allgemeinem sein. Anhand plausibler Textauslegungen von Stellen aus Kapitel 5 problematisiert Frede die traditionelle Auffassung des Inseins und die daraus resultierenden Konsequenzen. Dem gleichwohl nach wie vor eleganten Lösungsvorschlag der Tradition, individuelle Eigenschaften durch ihre individuellen Träger jeweils individuiert sein zu lassen, vermag Frede keine entsprechende Alternative entgegenzusetzen. Festzustellen bleibt, daß die Fredesche Interpretation das bisher gedanklich klare Konzept des Aristoteles beziehungsweise seiner Kommentatoren aufweicht. Es läßt sich eventuell vermuten, daß auch Aristoteles, trotz der von Frede herangezogenen Passagen aus dem Text, eine Auffassung vertreten hat, die der traditionellen Interpretation entspricht oder nahesteht. Es ist tatsächlich oft schwierig, den Unterschied zwischen Individuellem und Allgemeinem sprachlich exakt zu formulieren.

Für die traditionelle Interpretation hat sich in der Frage, von welcher Art Entität das nichtssubstantielle Individuelle bei Aristoteles ist, auch R. Heinaman (1981) ausgesprochen. Heinaman zeigt auf, daß in Werken, die später als die Kategorienschrift sind, Aristoteles nichtssubstantielle Individuen als individuelle Instanzen von Eigenschaften akzeptiert und daß es vom Text gestützte Gründe dafür gibt, daß solche Entitäten (individuelle Instanzen von Eigenschaften) auch in der Kategorienschrift (und in der Topik) angenommen werden. Mit seiner Textauslegung wendet sich Heinaman nicht nur gegen die von Owen maßgeblich vertretene Auffassung, daß nichtssubstantielle Individuen so etwas wie "atomic species" seien, sondern auch gegen Fredes Versuch, dem er zu Recht vorhält, nicht klar zu machen, als was er denn nun eigentlich das nichtssubstantielle Individuelle, speziell in Abgrenzung gegen Owen, genau bestimmt. Das bleibt bei Frede in der Tat vage.

여 백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 논문

여 백